

2016-17년도 청소년 참정권 집중 활동 기획을 위한 간담회

- 청소년/인권/교육/시민단체 공동 간담회 제안서

수신 : 청소년/인권/교육/시민단체 및 관심 있는 개인 활동가

발신 : 교육공동체 나다,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1. 개요

가. 본 간담회에는 관심 있는 청소년/인권/교육/시민단체 및 개인 활동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16-17년도에 집중적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간담회지만, 운동의 방향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초벌적으로 논의하고 공동 활동이 가능한지 타진해보는 자리이므로 이후 운동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얼마든지 논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6년 10월 25일 오후 5시

● 장소 : 전교조본부

● 진행순서

1) 청소년 참정권 관련 현 상황 및 간담회 취지 소개 (10분)

2) 각 단위의 청소년 참정권 관련 사업 공유 (20분)

3)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방향 논의 및 쟁점 토론 (90분)

2. 배경

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8월 4일 선거권/피선거권/선거운동 제한연령을 만 18세로, 정당가입 제한연령을 만 15세로, 교육감 선거권 제한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돌아오는 대선에 적용되려면 내년 9월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위한 청소년 참정권운동을 지원하고 운동단위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나.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각 단위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선거권 제한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8세 선거권' 뿐 아니라 정당가입 등 청소년의 다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무산되기는 했지만 선관위에서 정당가입 제한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안을 준비하기도 했던 것은 최근 들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국면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판단합니다.

3. 취지

가. 이제껏 청소년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개별 단위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특히 선거철에 집중적으로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주민 의원 발

의안 통과를 위해, 그리고 발의안 통과를 넘어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범위가 앞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점부터 내년 9월까지 이어질 청소년 참정권 집중 활동을 다양한 단위에서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나. '18세 선거권'은 시민사회운동에서 어느 정도 합의 지반이 있지만, 선거운동 및 정당 가입, 교육감 선거 제한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단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의 내용보다 제한연령이 더 낮아야 한다거나 제한연령 자체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발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입법운동에 얼마나 치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토론하며 올해부터 내년 9월까지 진행될 운동의 주체와 내용, 형식을 조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쟁점

가. 지금의 국면이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국면인가?

- 1) 박주민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제한연령 하향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이번 국회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 2) 현재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 등 참정권 운동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가?
- 3) 청소년 인권 관련 의제와 사안 중 참정권 문제는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가?

나. 박주민 의원 발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가?

- 1) 선거권/피선거권/선거운동 제한연령 만 18세, 정당가입 제한연령 만 15세, 교육감 선거 제한연령 만 16세라는 기준은 타당한가?
- 2) 위 기준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이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타협하고 운동의 슬로건으로 내걸 수 있는가?

다. 지금 국면에서, 입법운동적인 성격의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가?

- 1) 구체적인 제한연령 하향 기준을 중심으로 입법운동적인 성격의 운동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청소년 참정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운동을 진행할 것인가?
- 2)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운동과 전반적인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함께 진행한다면, 그 두 가지를 함께 집중할 수 있는가? 함께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가?

라. 지금 국면에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누가 해야 하는가?

- 1) 내년 9월까지 청소년 참정권 집중 활동을 하는 단위는 한시적인 연대체로 꾸릴 것인가?
- 2) 연대체를 꾸린다면 그 연대체에 들어오는 단체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청소년 운동단체 및 진보적인 교육운동, 인권운동단체로 한정할 것인가, 혹은 청소년시설과 범시민운동단체 등 더 넓은 단위를 포함할 것인가?

마. 효과적인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방법은 무엇인가?